

10대 동물권 활동가 ‘틴카라’가 교육감 선거 후보님들에게 드리는 2022 교육감 선거 후보 대상 동물권 정책 질의서

(사)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2022 교육감 선거의 각 후보님에게 동물권 정책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동물권 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실현 의지 및 의견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카라는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동물을 존중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후보님의 답변을 정리하여 언론 및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질의서는 카라가 진행한 10대 동물권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틴카라’가 직접 작성한 질의서를 바탕으로 하며, △ 동물권 교육 의무화, △ 동물권 교사연수 진행, △ 주1회 채식급식의 정착, △ 교내 동물 사육 금지, △ 동물을 존중하는 현장학습, △ 교내 야생동물 보호 등 총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의에 선택형 답변을 먼저 표시해주시고, 되도록 구체적으로 의견을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이 사람, 동물, 지구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유익한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후보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회신기한 :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5시
- 회신처 : 이메일 edu@ekara.org / 팩스 02-3482-8835
- 담당자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평화 활동가 (070-4760-1206)

동물권 교육 의무화

실태 북회 남생 송니 한요 젤리 꿀벌

① 길고양이 학대 범죄 증가 및 영상 공유 유포
(최근 주요 사례 제시)
이성년자 가담자 증가

② 실험·농장 동물 수 증가 (수치 제시)

문제

· 생명 경시 풍조 확산
(축산물 소비량 증가)
→ 공장식 축산물 환경 열악 (인식 부족)

질의

→ ① 동물권 교육 (야타어, 동물학대예방, 실험·농장 동물 등)을 한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② 교과서 내 동물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③ 교과서 내 동물권 장해 내용을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 안.복, 조이, 리아, 리미경 -
2022. 5. 8

교사대상 동물권 교육 의무화

호연: 권 외 야방 재만 야방

- 동물 보호법 및 동물 관련 법률
- 생명 존중 (감수성 전파)
- 식생활 차이, 종교 존중
- 평등, 비차, 공존
- 양심의 자유
- 용어 사용 (ex. 개자식, 닭자식 ...)

채식 권역 의무화

2022. 5. 8 안·송니·한·요·젤리·꿀

실태 - 급식도 병행 했다 100% 수산물·육류는 포함한 메뉴 0
급식 → 급식 X (밥, 내물국, 떡볶이, 떡)

이유 - 급식 상태 조차 시
선택지에 채식과 함께 배제 (ex) 선택지에 생선 메뉴 X

문제 - 권장 용어 (채식 - 생선, 채식 - 미용식, 미안, 양념, 튀김 메뉴를 배제) 생선
간접적인 (현수, 필요할 때 이용 → 나무?)

용량의 축소 / 전량 생선 / 채식 포함 (→ 맛을 수 있을 때 생선 포함)

질의 - 100% 채식에서 최소 1회 채식 권역 의무화 필요
양자 대상 교육 실시 / 채식 권역을 위한

교내 사육 금지

송니, 복, 안, 조이, 리아

실태·문제 - 1. 환경적 차원
· 동물의 습성 및 생태 자유 보장 X

2. 관리적 차원
· 주양자가 명확 X
· 개사육자가 무분별하게 증가
· 내용물 (채비, 중성화, 먹이 등)

3. 사람과 동물의 관계
· 동물 -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 ↑
· 사람 - 알려줘야 함의·인연 발생

질의 - 교내 사육을 금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장학습> 리리컬, 남생, 북회, 남생, 젤리 삼집

실태

- 현장학습을 동물과 관련된 장소로 많이 간다.
- 학생의 선택권이 없다.
-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문제

- 목적, 사전교육, 책 X
- 음반
- 인간중심적 (종 차별), 동물권 존중 X
- 교육적 효과 X
- 죄책감
- 좋은 동물원 선택, 사전 교육 강화, 대체 (로봇, AR, 디뮤)

질의

- 현장학습 장소 선택 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시겠습니까?
- 사전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야생동물>

실태

- 교실에 동물이 들어오는 경우 (새, 벌, 고양이 등)
-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외부 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함
- 생명 존중 인식 부족 (곤충을 죽이는 경우)

질의

동물 친화적 학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 (버드세이버)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피해 이 지침을 위한 비용은 마련하시겠습니까?
-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 야생동물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리리컬 남생 한요 단 젤리 꿀벌

1. 동물권 교육 의무화

<p>실태</p>	<p>①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동물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돌을 던져 괴롭히거나, 길고양이 포획틀을 직접 구매해서 불법 이주 방사를 하고, 오픈카톡방 등 SNS를 통해 동물학대에 가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동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과 식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시민들 중 일부입니다. 가령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이뤄진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공장식 축산을 통해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지만, 관련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펫숍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동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반려동물 가구는 28.5%가 되었고, 2020년 한 해에만 13만 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371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희생되었으며, 닭·소·돼지와 같은 농장동물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10억 5천만 마리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동물이 처한 현실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p>문제</p>	<p>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동물, 제품 안전성 평가에 이용되는 실험동물, 인간의 식사를 위해 도축되는 농장동물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동물 생산물의 소비 주체이지만, 현재 동물권 교육은 필수가 아니기에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선생님들만 자발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한 지식이나 동물친화적인 실천, 생명 존중 의식이 학생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가 동물권에 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동물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질의</p>	<p>☞ 동물학대 예방, 실험동물 및 농장동물이 처한 현실 등을 주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권 교육을 한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동물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동물권에 위배되는 용어와 내용을 수록하지 않도록 ‘동물권 관점에서의 교과서 내용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p>

<p>선택형 답변</p>	<p>1) 동물권 교육 의무화</p>	<p><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p>
	<p>2) 교과서 내용 실태조사</p>	<p><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p>
<p>추가 의견</p>		

2. 동물권 교사연수 진행

실태	<p>① 학교에서 동물권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동물이 처한 현실이나 대안적인 실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물권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대부분 부족한 편입니다.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의 개념뿐 아니라 동물권에 관한 구체적인 주제들, 가령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모피동물, 실험동물, 동물보호법, 채식과 비거니즘, 윤리적 소비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숙지해야 하지만, 동물권 교사연수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② 최근 1~4년 사이에 서울시교육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교사를 위한 동물권 학습지도안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동물권 교사연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p>
문제	<p>교사연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만, 개별 선생님들이 동물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자료조사에 투입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는 동물권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진입장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p>
질의	<p>☞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동물권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p>

선택형 답변	<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
추가 의견	

3. 주1회 채식급식의 정착

<p>실태</p>	<p>① 여러 학교의 급식표를 분석해 보니, 수산물이나 육류를 포함한 메뉴가 매일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채식 가능한 메뉴로는 ‘밥’ 외에 주 1~2회 정도 나물류와 과일류가 제공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종종 급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설문지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문항은 없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성 식품 중에서 무엇을 선호하는지 질문할 뿐, 채식을 지향하는지 여부나 어떤 채식 식품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육식 위주의 학교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② 채식급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청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2021년 강원교육청에서는 채식급식 도입에 앞서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때 전문가를 초빙해 채식 식단 구성법에 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2022년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별 급식여건과 교육과정을 고려해 채식선택급식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채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실태조사 당시에는 ‘채식급식 정책 반대’ 응답이 56%에 달했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정책 ‘긍정’ 평가가 73%로 나타나 실제 실행 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p>
<p>문제</p>	<p>① 과도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은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합니다. 동물성 식품은 소화불량, 비만, 심장 및 대장 질환의 발생과 연관하며, 청소년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배우고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채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채식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식하는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즐겁기보다는 괴로운 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한정되어 식판이 텅 비게 되고, 부실한 식사는 학생의 건강 및 체력, 수업 집중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③ 현재 대부분의 축산물이 공장식 축산을 통해 생산되며, 축산업은 동물학대 및 기후위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농장동물은 비좁은 축사에 갇혀 본연의 습성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며,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20%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 동물, 환경을 위해 과도한 육식 위주 식습관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 급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p>
<p>질의</p>	<p>☞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소 주1회 채식급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 채식 급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학생·학부모·영양사·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p>

선택형 답변	1) 주1회 채식급식 실현	<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
	2) 채식에 관한 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
추가 의견		

4. 교내 동물 사육 금지

<p>실태</p>	<p>교실이나 운동장 한편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는지 관찰함으로써 동물에 대해 배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교실에서 개미, 나비, 개구리, 햄스터, 장수하늘소 등을 키우기도 하고, 학교 건물 밖에 사육장을 만들어 토끼나 닭 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교정에 연못을 만들어서 단순 관상용으로 어류를 사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문제</p>	<p>① 모든 동물에게는 본연의 생태에 맞는 자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야 할 동물을 데려와 교내에서 키운다면, 동물이 가진 본연의 습성과 권리가 존중되기 어렵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비좁은 공간에서 지내면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쉬울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손길이나 소음, 생태에 맞지 않는 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학교 행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 보호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을 경우 동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으며, 보호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방학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학교에 나와서 동물을 돌보아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잘못된 관리로 개체수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치료나 중성화 수술, 먹이, 시설 관리 등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피해를 입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③ 교실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1년이 지나 종업식을 하게 되면 동물들이 지낼 공간이 사라집니다. 동물이 무분별하게 방생되거나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의 수명이나 사후 대책을 고려하고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p>
<p>질의</p>	<p>☞ 교내 동물 사육 금지 정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교내에서 사육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주 책임자를 정하고 사육 매뉴얼 및 관련 예산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릴 의향이 있습니까?</p>

<p>선택형 답변</p>	<p>1) 동물 사육 금지 정책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p>
	<p>2) 매뉴얼 및 예산 지침 전달</p>	<p><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p>
<p>추가 의견</p>		

5. 동물을 존중하는 현장학습

실태	<p>① 학교에서는 동물원, 수족관 등 동물이 전시되어 있는 장소로 현장학습을 많이 갑니다. 동물의 생태와 본연의 습성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동물원과 수족관에 가게 되면, 학생들이 보고 돌아오는 것은 오직 동물의 겉모습 뿐입니다. ② 현장학습 장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마음 불편한 학생들도 동물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p>
문제	<p>① 동물원과 수족관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이유는 동물에 대해 배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갇혀 지내는 동물들이 보이는 모습과 행동은 야생에서의 그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모든 동물은 ‘동물의 5대 자유’, 즉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에 갇힌 동물들은 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비좁은 인공 시설에 갇혀 지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관람객들의 시선과 손길에 노출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형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연에서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을 가둬놓고 구경하는 것을 참된 교육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라면 동물을 전시하고 이용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 동물의 권리, 인간과 동물의 공존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② 현장학습 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윤리적 측면에서 함께 토의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질의	<p>☞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 현장학습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장학습 장소 선택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권고할 의향이 있습니까?</p>

선택형 답변	1) 현장학습 자제 권고	<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
	2) 학생 의견 반영 권고	<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
추가 의견		

6. 교내 야생동물 보호

실태	<p>대부분의 장소가 그러하듯, 학교에도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교실에 새, 벌, 고양이 등의 동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길고양이가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근처에 터를 잡거나, 교정에 있는 나무에 새들이 동지를 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이 교실에 들어오거나 교정 안에서 지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내에서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p>
문제	<p>교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매뉴얼이 없으면 교실에 들어온 곤충을 함부로 죽이거나,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고양이를 내쫓는 등 함부로 대하거나, 야생조류가 부딪힐 수 있는 투명 유리창을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각자 야생동물 보호 방법을 찾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가 담긴 일반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교내 구성원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p>
질의	<p>☞ 교내 야생동물 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학교 건물에 있는 투명한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필름’을 부착하도록 관련 지침과 예산을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p>

선택형 답변	1) 야생동물 보호 매뉴얼 제작	<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
	2) 조류충돌방지 지침·예산 마련	<input type="checkbox"/> 의향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향 없음
추가 의견		

이제 여섯 개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 성심껏 답변해주신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답변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카라도 이후 답변을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후보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후보자명 :
- 담당자명 :
- 담당자 연락처 :

**교육감 후보 본인이 직접 질의서를 확인하고
소신에 따라 답변하였음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월 -일

교육감 후보

(인)